

CFD 매력 떨어질라... 증권사, 수수료 인하 '승부수'

〈차액결제거래〉

금융당국 규제에 최저증거금률 ↑ 고객 이탈 방지 위해 수수료 인하 메리트증권, 0.015% '업계 최저' 고객자산가 선점, 차별성 등 부각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CFD 최저증거금률 인상에 따라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모양새다.

CFD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거래상품이다. 즉,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투자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금융 상품이므로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시스

CFD의 증거금률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10~30% 수준이었지만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일제히 40%로 오른 상태다. 투자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FD 증거금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호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지도로 최저증거

금률이 통일돼 증권사 간 차별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트증권이 금감원의 행정지도 이후 CFD 수수료를 인하했다. 유진투자증

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삼성증권은 선제적으로 국내주식 CFD 수수료율을 기존 0.7%에서 0.07%로 인하했다. 이어 메리트증권이 지난 15일 국내주식 CFD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율을 0.015%로 낮췄다. 업계 최저수준이다. 삼성증권과 메리트증권은 올해 들어 CFD 서비스를 신규 출시한 후발 주자다. 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해 고객자산가 고객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트증권 관계자는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트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를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 투자 열풍에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 늘자 CFD 거래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CFD 계좌 수는 1만4883개로 전년 동기(4236개) 대비 251%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852억원에서 3950억원으로 363% 급증했다.

CFD 시장 규모가 커지자 새롭게 CFD 서비스를 출시하는 증권사들도 많아졌다.

올해 들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메리트증권 3곳이 CFD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 이로써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증권사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이어 총 10곳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대출 조이기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전셋값 상승 속 매맷값 주춤 구로 등 서남권은 상승세 강서 지역선 호가 2억 꺾춤

대출 축소에 이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예고되며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보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강서, 구로 등 서남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강세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랐고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8%, 0.11%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이사철 수요 유입과 매물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08% 상승했다. 그러나 상승폭의 경우 매매는 직전주(0.10%)와 동일하며 전세는 0.01% 떨어졌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위축됐지만 서울 서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오름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강서(0.26%) ▲구로(0.23%) ▲관악(0.19%) ▲강북(0.17%) ▲광진

(0.17%) ▲노원(0.17%) ▲용산(0.16%) ▲강남(0.14%) ▲영등포(0.14%) ▲동대문(0.13%) ▲서대문(0.13%) 순으로 상승했다. 강서는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서구 아파트를 살펴보면 강서힐스테이트는 전용 84㎡가 14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 8월 14억4500만원에 팔렸다. 전용 59㎡는 호가 3000만원 가량 오른 12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강서한강자이상은 전용 84㎡가 14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 8월 13억6000만원에 팔린 뒤 호가가 9000만원 올랐다. 전용 59㎡는 호가 2억원이 넘게 오른 12억원에 매물이 있다.

구로는 주공1차아파트 전용 73㎡가 지난달 팔린 가격보다 호가가 5000만원 오른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신도림대림1,2차 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12억4800만원에 팔린 뒤 4000만원 가량 오른 12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서울 전세가격은 매물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이 여전한 가운데 이사 수요가 유입되면서 ▲구로(0.21%) ▲노원(0.20%) ▲관악(0.18%) ▲동대문(0.18%) ▲영등포(0.18%) ▲강동(0.16%) ▲용산(0.14%) ▲강서(0.13%) 등이 올랐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지만 이런 상황만으로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하락 보다는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전세난, 대신 이슈 등 상승 요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비수기 없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 유입으로 수급 불만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왼쪽부터)김기창 충북도의원, 신준화 한양증권 본부장, 조병욱 충북 음성군수, 강문현 글로벌포원 회장, 이시중 충북지사,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 지난 15일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리츠운용

NH농협리츠운용, 물류센터 개발 투자

충북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NH농협리츠운용은 충북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복합물류센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NH농협리츠운용은 지난 9월 물류센터 개발 SPC인 금왕에프원을 글로벌포원, 한양증권과 합작 설립했다. 총 사업비는 1537억원으로 산업단지 내 저온·상온창고를 모두 갖춘 연면적 3만5000평의 최신 복합물류센터로 개발되며 준공은 2024년 상반기다. 금왕에프원(개발SPC)은 사전에 음성군과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인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 15일 NH농협리츠운용·충청북도·음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발속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NH농협리츠운용은 이번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과 자금조달을 담당하며 향후 신축 물류센터의 우선매수권도 확보했다. 개발 예정인 복합물류센터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 규모의 전층 접안이 가능한 램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접해 중부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춰 급증하는 물류 수요의 대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는 "최근 충북 음성군은 물류 주요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입지적 강점을 지닌 음성군에 투자 할 기회를 얻어 기쁘고 투자진행에 도움을 주신 충청북도과 음성군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권소환 기자 think@

비규제 지역 춘천 등 전국 10곳서 5028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건본주택 5곳 개관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5028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영구임대 포함,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제외)가 분양을 시작한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서는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강원 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60%,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접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포항 아이파크 투시도.

/리얼투데이

충남 예산에서는 '내포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시티'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건본주택은 '포항 아이파크' 등 5곳

에서 개관하며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양평 우방 아이유셀 에코리버', '시티오씨엘 4단지' 등 20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한국투자증권 노숙인 스텝다운형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전용 노숙인 스텝다운형 'TRUE ELS 14472회'를 총 2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홍콩H지수(HSCE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는 3년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

(36개월) 이상일 경우 연 7.2%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기 시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발생 가능한 원금손실률은 기초자산 하락률이 큰 종목 기준 -40%~-100%다.

노숙인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은 다른 스텝다운형 ELS에 비해 원금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양유경 기자 noon@